

면접 준비사항

1. 면접준비

1) 메리비언의 법칙

- 타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는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의 비중이 더 크다는 이론이다.
- 면접 또한 사람간의 대화이므로 시·청각적 요소(비언어적 표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 비언어적 요소는 복장, 태도, 자세와 더불어 기본적인 예절을 포함된다.

※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

① 면접에	늦는 게으름형 지원자 (59.9%, 복수응답)
②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면접에 임하는 성의 부족형 지원자 (32.9%)
③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기력형 지원자 (30.5%)
④ 면접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액세서리를 한 센스 없는 지원자 (29.2%)
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줄임말과 신조어를 쓰는 외계언어형 지원자 (22.6%)
⑥ 이력서에	쓴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킬앤하이드형 지원자 (18.2%)
⑦ 면접	도중 핸드폰이 울리는 무매너형 지원자 (17.6%)
⑧ 높임말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무식형 지원자 (16.5%)

[출처: 브레이크뉴스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 1,264명을 대상)]

(1) 시각적 요소

① 복장

- 너무 불거나 헐렁한 옷을 제외한 깔끔한 정장 차림(블라우스/셔츠, 단색 정장, 구두)
- 이마나 귀가 잘 드러나는 단정한 헤어스타일
-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색상의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태도

- 당당한 자세와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 허리는 곧게 펴고 부산스럽게 움직이지 않음.
- 면접관들은 과도한 제스처나 위축된 모습 등 무의식적인 행동 또한 관찰한다.
- 건들거리나 무례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③ 표정

-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인상을 쓰는 등 어두운 표정 보다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선을 맞추지 못하거나 눈동자를 굴리는 등의 시선처리는 좋지 않으므로 시선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매일 1분 정도 거울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2) 청각적 요소

① 음색

- 목소리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습관을 통해 가꾸는 것은 가능하다.
- 듣기 좋은 음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른 발성과 호흡법, 목을 피로하지 않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② 발음

- 부정확한 발음은 교정하는 것이 좋다.
- 발음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으나, 대부분은 생활습관에서 나오므로 교정이 가능하다.
- 문장 끊어서 말하기,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정확히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③ 빠르기와 크기

-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면 정보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 크기 또한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④ 말투

- 말투는 지원자의 성격과 습관을 보여줌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 알아듣기 어려운 사투리, 유행어나 줄임말, 말을 더듬거나 센 말투는 고쳐야 한다.
-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하며, 아~/음~ 같은 불필요한 표현은 자제한다.

(3) 언어적 요소

- 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치 않은 답변은 '지원자가 면접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구체적이고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면접관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경험,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는 편이 좋고, 이를 통해 본인이 얻은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④ 실제 경험, 사례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야기의 전개가 논리적 흐름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사전질문

- ①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 면접 때 당황하는 일이 적어진다.
 - ② 답변을 줄줄 외우기 보다는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할 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좋다.
 - ③ 채용공고사이트의 면접 후기 및 질문 리스트를 확인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 * 워크넷: 모두의 취업→취업가이드→면접역량 파악을 위한 대표질문들
 - * 잡코리아: 신입공채→인·적성, 면접후기→면접질문
 - * 인크루트: 자료실→면접→면접후기
 - * 사람인: 자료통→공채 필독 자료→면접질문 후기

2. 면접예상질문 및 답변 포인트

Q1.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Point]

자기소개는 출생에서 성장과정, 성격, 교우관계, 취미, 특기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결코 지루하지 않은 화법을 전개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로 30초, 1분, 2분 등의 제한된 시간을 주고 소개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시]

경남 통영이 고향인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경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꿈이었던 경영인을 실현하고자 대학 전공을 경영학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경영인으로서 알아야 할 전문적인 부분(구체적 언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취미활동이 있지만, 요즘은 야간산행을 주로 합니다. 야간산행을 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등반하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정상에 도달하면 성취감과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협력하고, 목표를 달성해내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Q2.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Point]

가족관계는 수험자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을 통해서 가문이나 정서 등을 알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대답할 때에는 가족구성원수, 근무처, 동거현황 등을 정확하게 설명한 후 가족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시]

부모님은 두 분 다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중소기업진흥 공단에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 2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누나는 출가했고 제 바로 밑 남동생은 현재 OO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며, 막내 동생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Q3. 자신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 보십시오.

[Point]

자신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흥미 등을 통해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문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직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개선할 것이라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양향적 성격(외향+내향)으로 맺고 끊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서 정감 있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정해진 목표는 꼭 이루고 마는 적극적인 성격도 있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적인 면도 강합니다.

Q4. 가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Point]

가훈은 가족의 행동양식이자 정신적 규범이다. 가훈의 유무와 어떤 가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정환경이나 분위기를 엿볼 수도 있다.

또한 가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예시]

'정의로써 살자, 남을 생각하며 살자'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면서도 저희 가훈을 생각하면 한번 씩 제 생활태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꼭 하루에 한번 씩 가훈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Q5. 우리 회사를 지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Point]

목적과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지원자는 계획과 준비와 이상이 없는 사람과 똑같으므로 기업에서 원치 않는다. 기업뿐만 아니라 부서지원 목적까지 뚜렷이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시]

국제시장을 무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제 꿈이었습니다.

특히 부존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수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귀사의 역사와 전략적 해외진출 역량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지켜봐 왔고,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Q6. 직장은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합니까?

[Point]

대다수 지원자들은 기업의 인지도나 경제적 급부를 보고 기업을 선택 한다.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탓인 듯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 시 답변까지 급여나 지명도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면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장래 비전이나 본인의 이상에 결부시켜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시]

'○○○○'이라는 귀사의 슬로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사원을 아끼고 자질을 최대한 키워주고자 하는 의지는 직원 개개인이 더욱 애사심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다져지리라 판단됩니다. 저 역시 그 속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Q7. ○○○씨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Point]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단지 호감이 간다기보다 어떤 연유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뉴스 또는 신문 검색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시]

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이윤 중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것을 보고 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기업' '봉사하는 기업' 이란 이미지가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Q8. 우리 회사의 채용정보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Point]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신문의 구인광고나 인터넷 채용정보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입수의 경로를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사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회사에 대해 관심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예시]

계속적으로 귀사에 대한 정보를 스크랩해왔습니다.

올해 초 전화문의를 했을 때 하반기 10월 중순쯤 채용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각종 매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귀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Q9. 대기업도 많은데 우리 회사 같은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Point]

중소기업의 매력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답하는 것이 좋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거나, 의사결정이 빠르고 다방면의 경험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중소기업이 국가기반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만의 예를 들어 답변해도 좋다.

[예시]

처음부터 저는 중소기업체를 지망하고자 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제 노력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낫고, 스스로 기획하고,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Q10. 초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Point]

임금은 근무조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무조건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기보다는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희망급여를 밝히는 것이 좋다.

정확히 얼마를 희망한다고 하기보다는 범위를 정해 융통성 있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적정한 기준에 따른 회사의 보수규정이 있을 줄 압니다.

일단 돈보다는 제게 주어진 업무를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굳이 희망한다면 초임 150~160만 원 정도면 만족하게 여기겠습니다.

Q11. 우리 회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실 생각이십니까?

[Point]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거나 자리를 옮길 경우 그만큼 손실이 뒤따른다. 일단 채용된 후 변함없이 회사의 발전에 매진할 뜻을 밝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거처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예시]

제 역량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귀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직업전문화 시대이니만큼 제가 맡은 업무에서는 최고의 장인이 될 때까지 귀사에서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Q12.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Point]

근무지는 지원자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 입사를 위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단 이 질문은 꼭 어디로 발령이 난다는 결과를 가정하고 묻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 융통성 있게 답할 필요가 있다. '어디든 좋다'거나 '어디는 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근무가능 지역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

[예시]

연고가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근무지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어떤 지역이든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Q13. 희망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Point]

'영업직입니다', '마케팅입니다'라는 단순한 대답보다는 희망업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희망업무를 밝히고 왜 그 업무를 하고 싶은지, 또 자신은 왜 그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는 것이 좋다. 희망 업무에 관련된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경력 등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시]

학과, 동아리 및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사회단체에서 기획업무를 주로 맡아 보았습니다.
제 성격도 맡은 일에 대해 시장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추진방안을 생각하고, 실행계획을 짜는 등 기획적인 업무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적성을 최대한 살리고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기획부문의 업무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Q14. 만약 입사가 된다면 어떤 각오로 회사생활에 임하겠습니까?

[Point]

지원업무와 관련해서 미래 비전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면 좋다. 단순히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은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예시]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과 무역업무에 대한 상당한 매력을 느껴왔고, 귀사를 통해 두 가지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만약 입사가 허락된다면 중남미 시장에서 '탑 비즈니스 맨'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5. 회사를 위해 어느 정도 공헌할 수 있습니까?

[Point]

입사 후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회사도 없고,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입사원도 드물다. 이 질문의 의도는 지원자의 애사심과 열정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고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차 회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예시]

입사하자마자 제 역량이 회사의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동안 배운 지식을 다한다면 머지 않아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16. 10년 후 귀하의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Point]

충분히 큰 이상과 포부를 밝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현실성이 없는 답변은 피해야 한다. 되도록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좋다.

[예시]

중남미 지사장으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Top Korea Business맨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쯤이면 중남미 구석구석에 우리 회사 제품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만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Q17. 상사가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oint]

응시자의 업무자세 및 인간성을 보기 위한 질문이다.

연공서열 개념이 무너지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곧 인간성마저 무너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는 분명 명령계통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상사의 지시에 맹목적, 절대복종은 곤란하다.

[예시]

먼저 지시한 의도에 대해 정중히 여쭙보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시를 했을 때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연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분히 재확인을 하고 그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따르겠습니다.

Q18. 원치 않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oint]

이 질문의 의도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되도록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전제한 뒤, 이왕이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업무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답변을 끝낸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예시]

회사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시험하고 적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업무경험을 쌓은 후 저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회사나 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19.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Point]

스트레스는 사회생활, 조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신만의 슬기로운 대처방안이 있다면 좋다. 어떤 과정이나 방법을 통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땀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결합니다.

평소 자주 가는 스쿼시 연습장에서 한 시간 정도 땀을 흘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고 새로운 의욕이 생겨납니다.

가끔씩은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을 만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Q20. 동아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어떤 동아리였습니까?

[Point]

동아리 활동은 곧 단체생활이다. 그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묻는 질문이다. 또한 적극적인 생활태도와 참여의식, 리더십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드시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그에 준하는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대로 밝히면 된다.

[예시]

'풍물패'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교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에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즉석사물놀이 공연을 했는데 수많은 관중이 몰려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슴 뿌듯함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내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까?

[Point]

그냥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답변보다는, 어떤 일을 했으며, 그것이 응시자의 직업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속에서 느끼고 얻은 경험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에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호감을 줄 수 있다.

[예시]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 학업에만 열중했고, 방학 동안에는 선배가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 왔습니다. 거기서 광고·이벤트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업에 계신 분들로부터 많은 현실적 도움말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는 3개월간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Q22.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Point]

이 질문을 통해서 는 응시자의 건강과 활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전한 사고가 나온다.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에서도 선호한다.

[예시]

스포츠라면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동참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구기종목에는 소질이 있어 중학교 때는 배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주말에는 조기축구 회원으로 공을 차며 건강과 마음을 다집니다.

Q23. ○○○씨가 생각하는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Point]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을 사귄다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자의 인격과 성품까지 엿볼 수 있고, 사회 활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양보, 사랑의 정신이 깃들여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다면 좋다.

[예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모든 일을 판단한다면 오해나 트러블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Q24. 휴일은 보통 어떻게 보내십니까?

[Point]

휴일이라고 해서 계획성 없이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쉬는 가운데서도 절제와 계획이 있고,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표현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예시]

새벽에 산을 오릅니다. 회원들과 모처럼 주말에 만나 한 주간의 안부도 묻고 새로운 회원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새벽 일찍 올라갔다 점심 때쯤이면 하산하므로 오후 시간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서점에 나가 어떤 새로운 책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다음 한 주를 위해 차분

히 계획을 세웁니다.

Q25. 신문을 읽을 때 어느 면부터 보십니까?

[Point]

지원자의 정보력과 관심도를 묻는 질문이다. 어느 면을 보는지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굳이 경제나 정치면이 아니어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면과 이유를 밝히면 된다.

[예시]

1면부터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면은 경제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사회 변화와 관계된 기사나 기업동향 등은 스크랩해두고 두 번 세 번 읽는 편입니다.

Q26. ○○○씨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Point]

응시자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답은 없다. 돈이나 권력, 명예 등에 기준을 두고 답하기 보다는 보람이나 성취의 기쁨을 대상으로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사회의 일원으로 작은 한 부분이라도 제 힘을 보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전문인으로 인정받고, 가정에서나 주변인들로부터 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Q27.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Point]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경험과 함께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극복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다.

[예시]

제 O회 손해사정인 시험을 친구와 같이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워 같이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했는데 저는 시험에서 떨어지고 친구만 합격을 했습니다. 실망도 많았습니다만 친구와 저의 학습습관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이후 부족한 점을 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해 치러진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실패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면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 지각은 절대금물이다. 10분 내지 15분 일찍 도착하라
- ▶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지 마라. 지시 없이 빠르게 앉으면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 ▶ 옷을 자주 고쳐 입지 말라. 침착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처럼 보인다.
- ▶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긴장하여 발장난이나 손장난을 하지 말라.
- ▶ 응답 시 너무 말을 꾸미지 말라.
- ▶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쁘게 대답하지 말라.
- ▶ 혹시 잘못 대답하였다고 해서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지 말라.
- ▶ 머리카락에 손대지 말라. 정서불안으로 보이기 쉽다.
- ▶ 면접장소에 타인이 들어올 때 절대로 일어서지 말라.
- ▶ 동종업계나 라이벌 회사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
- ▶ 인사관리자 책상에 있는 서류를 보지 말라.
- ▶ 농담을 하지 말라. 경망스러운 태도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게 보인다.
- ▶ 답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지 말라
- ▶ 자신 있다고 너무 큰소리로, 빨리, 많이 말하지 말라
- ▶ 면접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말하지 말라
- ▶ 과장이나 허세로 면접위원을 압도하려 하지 말라
- ▶ 최종결정까지 급여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 ▶ 은연중에 연고를 과시하지 말라